

122. 나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라!

자기증오와 불만은 이 생명체들이 내려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2015.09.02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하트드웰러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해요.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을 오늘밤에 저희에게 주셨는지요!

찬양하는 동안, 저는 어둡고 어두운 파란 구름을 보았고, 토네이도의 중심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것과 같은 일종의 소용돌이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 들에서 검은 날개를 가진 생명체의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그 어두운 구름과 같은 검은 날개가 달린 생명체요. 그 무리들은 저희들의 공간으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CERN(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와 그 차원, 그리고 그 차원을 통해 들어오는 악마들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정말 너무 역겨웠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름 같았어요.

그것들은 나무들에 내려 앉았어요. 그것들은 가고일을 생각나게 하였어요. 그냥 정말 더럽고 사악한 생명체들이에요. 그리고 선사시대의 새들도 생각나게 했어요. 저는 또한 릭 조이너(Rick Joyner)도 이런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것이 릭 조이너가 그의 책에서 쓴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배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살해된 백마를 먹었고 배가 부풀어 있었어요. 시체들이 땅에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드렸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제가 그것을 적기 시작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생명체들은 박쥐-독수리 종류의 동물과 같고 이 짐승들의 본성은 어둠속에 살면서 죽음을 먹는 것이야.

죽은 백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에 의해 살해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 이 생명체들은 착륙하는 곳마다 죽음을 배설해. 그것들이 내려오려면 반드시 죄가 있어야 해. 혐담, 비방, 중상, 비난. 자신을 향한 것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든. 그래서 내가 나의 신부들의 입과 마음에 비방과 비난을 근절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것들이 나의 신부들에게 내려 앉기를 원하지 않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태도들로 너희들은 문을 열고 이 불결한 생명체들을 초대하게 돼. 사탄은 그것들이 착륙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 너희 자신들에게 개인적인 불만족을 가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 찬양이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이유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의 신부의 아름다움과 순결을 회복시켜줘. 이것은 내가 너희들이 내가 보는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너희들에게 줘.

너희들이 자신을 폄하할 때, 너희들은 이 사악한 생명체들을 위한 착륙 장소를 만들어 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밤낮으로 너희들을 비하시키기 위해 거짓의 영을 내보내고 있어. 이 메세지는 내려왔을 곳을 가질 이 생명체들에게서 너희들을 대비시키기 위한 거야. 그리고 일단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배변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폄하하기 시작해. 너희들은 절름발이가 되.. 너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굳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는 기회들을 찾고 괴로워하고 환멸을 느껴.

이게 너희들에게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니? 나의 신부들아 주위를 둘러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결점을 찾는 것이 보이지 않니? 그들은 비통함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그 사람들에게 배변할 때, 그 사람들은 차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변해. 그리고 그 순환은 계속되어져.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위해 왔어. 풍부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평화 그리고 기쁨이야. 너희들은 이러한 깨끗한 특질과 그 배변을 동시에 가질 수 없어. 이것이 너희들이 나의 임재로 들어올 때 너희들을 정화시키는 이유야. 그리고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 이것은 정말 필요해. 내가 너희들을 채운 후에 너희들이 만지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새로운 삶으로 가득 차. 그런 다음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나의 기름부음은 그들의 인간적인 가치를 회복하기 시작해. 영혼들에 대한 대가는..나의 고난이야. 내가 겪은 고난보다도 가치가 적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의 눈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나에게 가치 있는 거야.

따라서 내 사랑의 대사가 되려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 편안해져야 해. 너희들이 있었던 곳,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곳.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러면 너희들의 영혼에는 질병, 자기 증오 또는 자기 혐오가 있을 수 없어.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겸손과 자기증오에는 차이가 있어. 너희들이 자신을 미워하는데 집중할 때 어떻게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와 악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야. (로마서2장4절)

죄와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좋은 것이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은 싫어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자신을 싫어할 수 있어? 너희들은 그럴 수 없어. 너희들은 그래서 안돼! 그것은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원했다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나는 영원한 비난을 가져다주었을 거야.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3장16절)

악하다고 판단하고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구원하고 구해줄 수 있겠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죄를 싫어해. 너희들은 나와 사랑에 빠졌어. 왜냐하면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죄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꾸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해. 내가 너희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어?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두려움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순종은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순종보다 열등해. 너희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태초부터 나의 소망이었어.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때까지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회개하도록 동기를 부여 받았어. 그리고 그 하나의 두려움은 어디까지 갈까?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에 너희들을 덮칠 때까지 계속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항상 더 두려워지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너희들의 사랑을 나에게 두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너희들에게 두려움으로 영감을 주어서? 물론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 속에서 만약 너희들이 나에게 대한 사랑을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것도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는 삶의 시점에 오게 되. 그리고 그 시점에서 너희들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을 잃게 되.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 대한 그러한 사랑으로 빛나고 너희들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자들에게 기꺼이 너희들의 육체를 먹일 거야.

나의 신부들아, 결국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 안에 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사는 나의 임재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랑에 열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할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복음14장23절)

너희들은 죄를 싫어하게 되고 내가 영원을 위해 선택한 거주지를 사랑할 거야. 그 거주지가 너희들의 마음이야. 나는 모든 것을 새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는 너희들이 처음

아버지(하나님)에게서 나온 순결로 회복시켜. 어떻게 너희들이 아버지의 본질을 사랑할 수 없겠어? 너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포함해서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할 거야. 너희들은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며 너희들의 삶에서 거부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않을 거야!

나의 신부들아 알겠어? 너희들은 나에게 정말 아름다워! 그래, 너희들은 아름다워! 나는 모든 것을 내 자신에게 회복시켰어.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1장19~22절)

내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내 안에서 너희자신이 되어지고 있는 너희들을 사랑하도록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까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가 했던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마태복음 22장37~40절)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지금 시작해야 해. 아침에 나의 사랑과 나의 미소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경계하여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려라. 너희들에 대한 나의 말에 순종하도록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라.’ (고린도후서10장5절 참조)

그래,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미소를 새기고 싶어. 나의 사랑과 나의 승인이 너희들의 몸의 모든 구멍에서 스며 나오기를 나는 원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 알아차리게 될 것들이야 – 너희들에게 생명의 샘이 있어.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서 들어 올려지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 거야. 그래, 너희들은 나의 사랑의 대사이자 사절이야. 그러니 나의 빛을 흐리게 하는 비난의 구름은 있을 수 없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마태복음5장16절)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비추는 나의 미소에 대한 기억으로 너희들을 축복해. 매일 나에게 와서 나의 기쁨을 너희들의 영혼에 받아들여라.